

## 청년층가계와 장년층가계의 재무상태 비교

김지혜(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통합과정)

윤정혜(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가계와 장년층가계의 재무상태[가처분소득, 자산총액, 부채보유여부, 부채총액, 재무지표: 안정성지표(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 성장성지표(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를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이다. 2012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가계(가구주 만나이 19~29세)와 장년층가계(가구주 만나이 30~45세)에 속하는 3,691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를 구하고 카이자승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가처분소득, 자산, 부채, 부채보유여부는 청년층가계가 장년층가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둘째,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청년층가계와 장년층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안정성지표를 나타내는 비상자금지표와 부채부담지표는 청년층가계와 장년층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성장성지표 중 투자성향지표는 청년층가계가 장년층가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다섯째,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성장성지표 중 유동성지표는 청년층가계가 장년층가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여섯째, 청년층가계는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가 준거기준을 충족하였다. 일곱째, 장년층가계는 안정성지표의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성장성지표는 준거기준을 충족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년층가계는 부채부담지표 중 금융자산과 총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평균이 준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앙값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자산이나 총자산으로 부채상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산상태인 장년층가계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저자산집단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환이 어려우므로(송현주, 윤정혜, 2012), 부채를 보유한 청년층 가계를 대상으로 부채상환가능성을 살펴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층가계가 취업난으로 인해 실업상태이거나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경우, 청년층의 안정성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가계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송현주, 윤정혜(2012).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의 부채보유여부와 가계 재무상태 :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대한가정학회지* 50(4), 37-50.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